

네팔: 미완의 혁명

Lmao



역사적으로 네팔은 외국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사는 네팔인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1903년 티베트를 공격할 때 네팔을 이용했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영국 지배자들이 300,000명이나 되는 네팔인들을 용병으로 쓰려고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 대가로 영국은 1923년 네팔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주었다.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물려갔지만 서구 국가들의 간섭은 여전했다. 그런 외세의 간섭을 탈피해보려고 1955년에 즉위한 마헨드라(Mahendra) 왕은 친 중국 노선을 걸었다. 그러자 1959년에 주 네팔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 직접 개입한 반란이 계획되었다. 스위스는 당시 총리인 BP 코이랄라(koirala)를 도와 용병 출신 네팔인들을 반란에 투입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였다. 그 반란 계획은 실패하여 BP 코이랄라 총리는 체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 네팔이 서구 열강들과 교류를 끊고 쇄국 정책을 펼치자 그들의 개입과 간섭 공작은 더욱 교활하고 집요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국제연합(UN)을 내세워 회유와 협박으로 네팔을 압박했다. 국제연합은 1983년에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를 만들고 히말라야 산맥 주변의 산림, 광물, 지질 조사와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기구는 히말라야 산맥과 연계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까지 포괄한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거대 프로젝트는 이들 지역의 생태환경과 산림환경, 지하자원과 물을 조사연구 하였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자, 네팔에서 국제연합은 연구조사에 머물지 않고 노골적으로 간섭활동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모든 국제연합 기관들과 국제 비정부 단체들이 네팔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들은 원조를 통해 네팔인들을 길들이려 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인 네팔은 국제기구와 비정부 단체들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 최근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는 CIA(중앙정보국)와 NSA(국가안전보장국) 감청조직이 'XKEYSCORE'라 불리는 시스템으로 네팔과 히말라야 지역의 모든 통신, 인터넷 망을 도청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감시와 도청으로 네팔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간섭하고 있다. 네팔은 대부분의 생필품과 소비제품을 인도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미국과 인도는 이와 같은 네팔의 약점을 이용하여 인민혁명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간섭으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2008년에 인민전쟁 노선을 접고 평화적인 의회주의 노선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로 한다.

새로운 네팔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가 2008년 실시되었고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제1당이 되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네팔의 대중들은 혁명무력으로 네팔 봉건 지배체제를 쓰러뜨린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을 신뢰했고 민주적인 정부가 건설될 것으로 믿었다. 오랜 기간의 내전으로 궁핍하게 지냈던 네팔 인민들은 평화와 번영의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였다.

인도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여 생필품의 부족으로 네팔의 물가가 폭등하였다. 미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중단 압박은 네팔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혼란을 틈타 군벌과 자본가들은 왕정복고와 공공연하게 반혁명을 이야기하며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결연한 의지로 혁명정권을 공고히 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정권을 잡은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주요 간부들은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개인 이익추구에 바싹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혁명 정권이 들어서면 급진적인 사회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잔뜩 겁먹고 있었던 기존의 지배세력은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수정주의 노선에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인민해방군을 해산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며, 사실상의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인민해방군은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물리적 힘을 담보하는 혁명무력인데, 그것의 해체는 혁명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에 취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 지도부는 더 이상 혁명무력이 필요 없다며 2011년 11월에 일방적으로 인민해방군을 해산한다. 이는 당 내부에 어마어마한 반발과 혼란을 일으켰으며 조직의 민주성과 사상과 이념을 깡그리 짓밟개는 일이었다.

당 지도부는 14,000명의 인민해방군을 새로 창설하는 네팔군에 모두 통합시키기로 하였다. 상식적으로 10년 이상을 서로 적대하며 지낸 인민해방군과 정부군을 통합하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인민해방군에서의 활동은 비합법적인 게릴라 투쟁이었기 때문에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그런 특수한 사정에 대한 배려 없는 통합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인민해방군은 대부분 자격미달로 1,451명만 정부군에 편입되었다. 대부분은 고작해야 산악순찰대원이 되는 거였다. 정부군이 되어도 인민해방군 출신에게는

무기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이상을 목숨 바쳐 투쟁하였던 혁명의 전위대원들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며 정부군을 떠났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수정주의 배신은 인민해방군의 해체에 그치지 않았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10년 이상 내전을 벌이며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촌 해방구의 근거지가 튼튼했기 때문이다. 농촌 해방구 지역에서는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토지개혁을 하였다

마을인민위원회도 조직하여 치안을 유지하였고 공평한 사법처리를 하여 인민들의 신뢰가 높았다 특히 여성과 하층 카스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회개혁에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개혁으로 인민대중이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혁명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수정주의 당 지도부는 그런 개혁 조치들을 무효화 하였고 토지를 대지주에게 되돌려 주게끔 하였다

수정주의 당 지도부는 낙후된 네팔의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본주의 근대화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혁명사상 이론을 폐기하였다수정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에 완전히 투항하여 인민해방군을 해산하였고 그들의 정권 기반이었던 농촌 해방구도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 이병진, 「[네팔인민민주혁명의 시련과 과제](#)」 中